

우리 비겁을 묵묵히 지켜본, 학(鶴)처럼 고고한 목포대교

이영천 | 작가

고고한 자태의 학을 닮은 사장교가 있다. 목포 해양대학교 부근에서 고하도 옹머리 해안을 잇는 목포대교다. 삼학도(三鶴島)는 3마리 학의 형상화로, 항구도시 목포의 상징이면서 전설을 간직한 명소다. 이 학이 목포대교에 내려앉았다. 2012년 6월에 만들어진 다리를 멀리서 바라보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두 마리 학의 모습이 선명하다. 주탑과 경사 케이블 색채가 이뤄내는 앙상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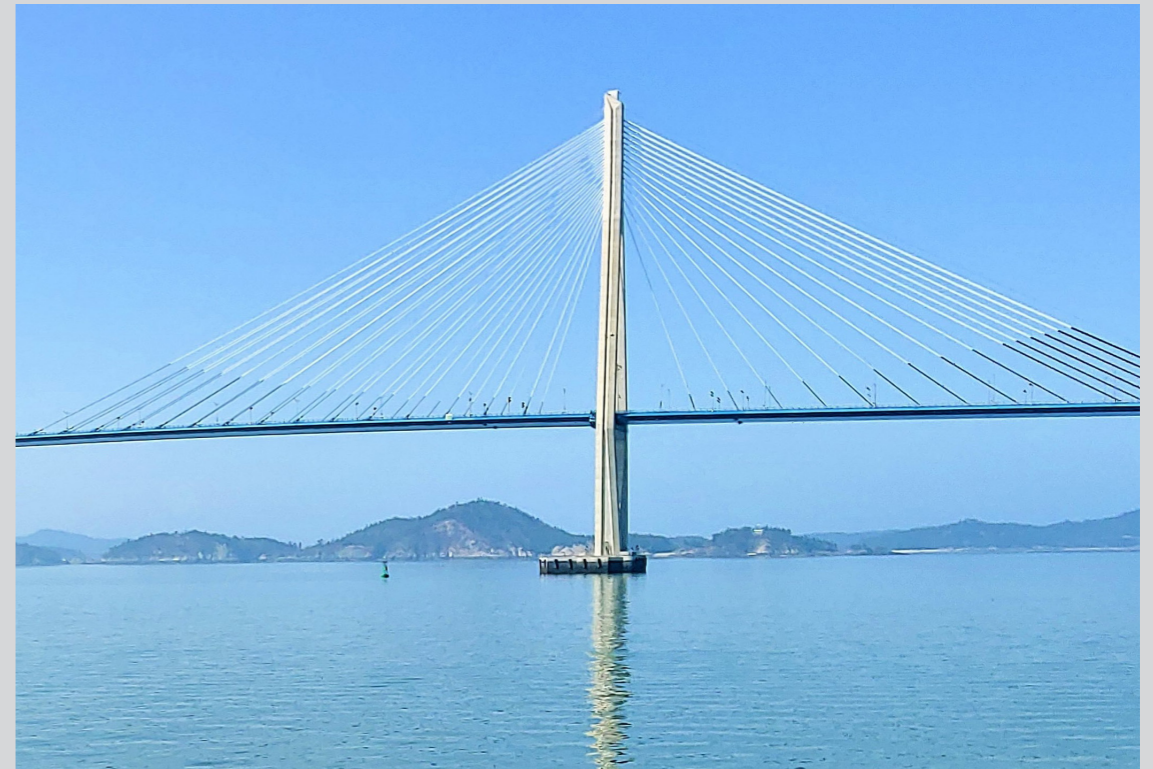


고하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옹머리와 목포대교. 목포 상징인 삼학도 학의 형상화다. ©이영천

사장교는 2면 식 케이블(2-way cable, 보강형 양측 가장자리에 케이블 거치)을 채용하는 게 통상적이다. 많은 경험과 공학적 데이터(Data), 설계와 시공기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혹 1면 식 케이블(보강형 중앙에 케이블 거치)이 쓰이기도 하지만 흔하진 않다. 1면 식은 사장교 모습을 빼닮은 엑스트라-도즈드교(Extradosed Bridge)에 많이 채용한다.

특이한 공법

목포대교는 '3면 식 케이블(3-way cable) 공법'을 적용한 사장교다. 3면 식은 경사 케이블이 구간을 달리해 다리 중앙과 양쪽 가장자리에 나뉘어 걸린 다리를 일컫는다. 케이블이 번갈아 걸린 곳이 3면이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최초이고, 세계에선 두 번째다. 진입부는 다리 중앙에, 두 주탑 사이는 양쪽 가장자리에, 진출부는 다시 중앙에 케이블을 걸었다.



주탑과 경사 케이블의 모습. 다리를 건너면 면을 달리한 모습이 선명하다. ©이영천

부정정구조물(不靜定構造物,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 계산을 통해 내력과 반력을 계산해 내기 어려운 구조물)인 사장교는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1면이나 2면 식 사장교도 고난도 구조물이지만, 대체로 기술력은 일반화하였다. 하지만 3면 식 사장교는 생소하면서도 1면이나 2면 식과 비교해 난이도가 엄청나다. 그만큼 구조적으로나 역학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의미다. 이런 다리를 만들어 냈다는 건 설계나 시공에 충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었다는 방증이다. 우리 기술력의 쾌거다.

국도 1호선 시점과 길이를 바꾼

다리가 앉아 있는 곳은 서해안고속도로 종점에서 목포 북~서쪽을 순환하는 도로의 한 구간으로, 북항에서 신항만까지 4.129km 연륙교 구간이다. 이중 목포대교 구간은 총연장 3.06km로, 3경간 사장교는 900m(200+500+200)이다. 다이아몬드형 2주탑에 유선형 강상판(steel plate deck) 보강형을 매달았다.



학 두 마리가 날개를 펼친 모습의 목포대교. ©이영천

유선형의 보강형 채택은 바람이 많이 부는 목포항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경사 케이블을 활용, 날아오르는 학을 형상화했다. 다리 밑으로 통항(通航)하는 배 규모를 결정하는 높이인 형하고(桁下高)는 53m다. 5만 톤급 선박 통항이 가능한 높이다.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국도 1호선 연장이 4.129km 늘어난다. 시점도 목포신항만으로 바뀐다. 국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매긴다. 시·종점을 정할 때 홀수는 남(시점)→북(종점)으로, 짝수는 서(시점)→동(종점)으로 한다. 1호선이 목포~신의주, 2호선이 신안~부산 방식이다. 따라서 홀수는 남→북으로, 짝수는 서→동으로 늘어지게 된다. 여기에 번호를 부여하는데 홀수는 서→동으로 1, 3, 5, 7호 순으로, 짝수는 남→북으로 2, 4, 6, 8호 순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지도를 펴고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외는 있으나, 이 방식이 국도 시·종점과 노선 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이다.



목포항 주 항로를 이룬 바다와 유달산. ©이영천

대교가 끝나는 곳이 고하도와 허사도다. 이곳 고하도는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임시 삼도수군통제영을 만든 곳이다. 이곳에서 고금도로 통제영을 옮기기 전까지 많은 전투선과 식량을 비축하고, 군사를 초모(招募)한다. 지금은 목포신항만이 들어서 있다. 목포대교를 건너면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처참한 모습의 세월호를 만날 수 있다. 이곳 신항만에는 '세월호'가 녹이 쓴 모습으로, 긴 시간 쓰리고 아픈 숨을 내쉬고 있는 곳이다.

아픔의 세월호

처참하게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2017년 4월 11일 물으로 올라온다. 인양을 결정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육지로 끌어 올려진 것이다. 침몰하고 3년에서 5일을 떠돌던 채운 날이었다.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던 말인가?

2014년 4월 16일은 청천벽력 같은 날이었다. 오전 방송매체에 뜬 속보는, 모든 사람이 경악할 만한 장면이었다. 길이 145m에 폭이 22m인 거대한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려 6천 8백 톤이 넘는 거대한 연락선(여객과 화물운송 겸용)이다. 주변으로는 많은 배들이 선회하고 헬기까지 떠 있다. 가라앉는 모습이 실황으로 중계된다. 곧이어 전원구조라는 속보가 뜬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터무니없는 오보로 밝혀진다. 영혼 없는 우리 언론의 현주소이자 부끄러운 민낯이다. 뒤집힌 배는 밤늦도록 물 위에 허연 바닥을 드러내고 누워있었다.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무기력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애타는 마음을 보태기에도 벅찬, 쓰리고 처참한 광경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권력

우리의 무능과 비겁이 세월호와 같이 수장(水葬)되고 있었다. 고귀한 수백 송이 어린 꽃들이, 우리 부끄러움을 다 안아 가라앉고 있었다. 언론은 저열하고 무기력했으며, 당시 권력은 악랄했다. 최고 권력자의 무능과 두문불출을 감추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배를 소유한 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 만들어진다. 정보기관을 총동원해 유족들을 감시한다. 해양경찰 등 정부 기관보다 어민들과 민간인 잠수사들의 활약이 더 돋보이고 처절하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어두운 그늘이고 부끄러운 이면의 축소판이었다.



2017년 팽목(진도)항. 수많은 시민이 회한의 눈물을 흘린 곳이다. ©이영천

권력을 가진 기회주의자들이 먼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꼴을 보였다.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을 백안시하는 나쁜 권력의 모습을 빼닮았다. 어린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다. 보상비와 각종 특혜에 혈안이 된 집단처럼 유족을 매도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한참 후에야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마저 무력화시키기에 급급하다. 권력과 정보기관,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를 총동원시킨다. 이들을 앞세워 면죄부 쌓기에 급급했다. 총체적인 난국이자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사건이 일어나던 시각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아둔하고 무능한 최고 권력자 뒷수습이 급선무로 보였다.

진실을 인양하는 그날까지

어떤 정치인은 '교통사고'라 했다. 또 다른 논객과 정치인이 유족을 상대로 '시체 팔이' 한다면 조롱한다. 아픔을 같이하진 못할망정, 도를 넘은 망발이었다. 모두가 분노한다.

하지만 진실마저 가라앉은 건 아니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린다. 그리고 한 달 남짓, 우리의 비겁과 무관심, 부끄러움과 무기력이 배와 함께 물으로 올라온 것이다. 바로 이곳 목포신항만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최고 권력자 파면 판결문에 세월호 참사가 직접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만다.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2021년 검찰이 주도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 구조 지연 및 수사외압 의혹' 등 명백한 사실을 무혐의 처분해버린다. 법과 정의가 무언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2023년 가을 '구조에 실패한'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다. 10년이란 시간, 무엇을 재판했던 말인가. 그나마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국립 세월호 생명 기억관(가칭)'이 2029년 고하도에 생긴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목포신항만에 올라와 있는 2020년의 녹슨 세월호. ©이영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목포신항만에 빈 채 방치된 세월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물 속으로 가라앉혀버린 비겁과 무관심, 부끄러움과 무기력을 말이다. 가라앉은 어린 꽃들은 반드시 피어나야만 한다. 촛불의 물결로 출렁이던 그 뜨거웠던 겨울, 광화문광장에 울려 퍼진 노래에 모든 게 담겨있다. 진실이 인양되는 그 날까지, 결코 우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함으로써 어린 꽃들을 반드시 피워내고야 말 것이다.

세찬 바람에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선 목포대교가 무척 늠름해 보인다. 🇰🇷